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서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9. 주 은혜를 받으려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생명의 주 하나님, 몸을 눕힐 곳조차 없어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족한 것 없이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이들의 쓰러린 삶 속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움을 하소연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간 중국 동포의 절망이 자꾸만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님, 우리 가슴이 돌로 만든 떡을 먹어 돌가슴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웃과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대를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이제는 잠잠케 해주시고, 이웃들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4:7-8 .....	인도자
♣ 교 독 문 .....	75. 성서주일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정숙 선생 II. 박옥식 전도사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238. 주님의 귀한 말씀은 .....	다함께
성경봉독 .....	I. 창4:17-26 .....	다함께
	II. 시119:129-136 .....	박홍재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라멕의 노래 .....	김기석 목사
	II. 말씀에 맞들이라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209. 주의 말씀 받은 그날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확신에 찬 걸음걸이로 어둠을 가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곁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우리들이, 세파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살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힘겹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뜻대이신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걷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2003년도 당회	로마서 강해(63)
회무처리 : 담임목사	기도 : 임정자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한성건 선생 윤정덕 장로	다함께 문영혜 집사

<b>12월</b>	영접위원	윤정덕	박창운	박규석	조병주	백혜숙	이증자
	헌금위원	윤석철	김중수	한상익	구성실	김필순	이순정

##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 같은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면 생각나는 성서 구절이 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서신의 한 대목.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요컨대, 자기에게는 잡고자 하는 바가 있거니와 아직 그것을 잡지는 못했고 다만 그것을 잡으려 달려갈 뿐이라는 얘기다. 그가 과연 그 잡고자 한 것을 살아생전에 잡았는지 아니면 끝내 잡지 못하고 말았는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없고 또 알 바도 아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꾀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자세다.

(중략)

### 지난날의 지난 날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나는 성자(聖者)가 되고 싶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프란체스코를 존경했고 어거스틴을 감명깊게 읽었다. 지금도 나는 그 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필코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런 것은 이미 내게 문제가 아니다.

‘성자’라는 타이틀은 세상이 그에게 주는 것이지 본인이 획득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성자라고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목표가 있었을 뿐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는지,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오직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예수를 눈앞에 두었다. 잘못 살아온 지난날이 내겐 왜 없으랴? 그러나 지난 날은 지난 날이다. 이제 와서 어쩔 것인가? 과거의 잘잘못에 발이 묶여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왕의 어리석음에 새로운 어리석음을 보태는 격일 따름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가 내게 아무 의도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다. 강에게 개울이 없다면 바다가 어찌 있겠는가? 내 과거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지난날의 잘잘못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는가?

나는 내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을 밟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한다면, 지난날 내가 저지른 슬한 허물과 잘못들에 대하여 자랑까지는 아니라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나아가 좌절과 낙담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걸어온 자신이 대견스럽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

## 행복한 사람

나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덕을 입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과연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가? 놀라게 된다. 나를 낳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이모 저모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글을 읽어 준 이웃들, 날마다 먹을거리를 마련해 준 농부와 어부들, 그런가 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몸으로 깨닫도록 도와준 군부 독재자들, 깨끗하지 못한 돈은 개인과 사회를 망칠 뿐이라는 진실을 일깨워 주느라고 지금도 분주한 정치인들까지, 나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이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운명일까?

여기까지 읽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듯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저 가없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듯이 당신도 당신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임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미완의 생애를 마치게 되듯이 당신 또한 결국은 미완의 생애로 끝날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 달려가도 끝내 도달하지 못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현주, <<작은 것이 아름답다>> 12월 호 중에서)

## ■ 마/음/으/조/읽/는/글

### 듣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웃의 말과 행동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하루의 작은 여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의 말과 행동을  
건성으로 들어 치우거나 귀찮아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웃을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임을,  
내가 성숙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못들은 척 귀 막아 버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며 핑계를 대는  
적당한 편리주의, 알미운 합리주의를 견책하여 주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울어야 할 때에 울고, 웃어야 할 때에 웃을 수 있는  
민감하게 듣고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잘 듣는 사람만이 남을 잘 들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방현복 이부방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구명자  
 홍순구 안홍숙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곽혜자 김순복 전영웅 최종원  
 정완수 김재광 윤수진 이소순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이봉배 박시내  
 안정숙 이인웅

###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김흥기 박석희 조항미 윤주원 최윤선 이한림 김명희  
 문금석 이동천 최주환 문복순 황원순 전영규 김경수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백혜성 백묘현 김종문 지명주 이갑재 조동길 배부례

### 감사헌금:

방현복 이부방 김철수 유영남 김종수 이순정 방문성 박혜경 이인섭  
 김순복 이성범 이민범 최성애 박찬정 최인환 무명2

구도헌금: 임창선

##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정 두 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김 필 순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명 순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이 봉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중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당회** : 2003년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새해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남녀 선교회가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연합속회** : 12월 19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이고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예배인도 - 다메섹속 식사준비 - 갈라디아속
4. **성탄맞이 행사** : 21일 오후집회는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탄맞이 행사를 하고, 24일(수) 오후 7시 30분에는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오실 때 작은 선물(1만원 한도)을 마련하여 간단한 성탄축하 메시지와 함께 포장해오십시오. 선물 교환 순서를 갖겠습니다.
5. **헌화 신청** : 내년에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주일에 중복될 수도 있으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늘양식 신청** : 감리교회에서 발행하는 가정 예배서 <<하늘양식>>이 꼭 필요한 분들은 뒤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주십시오. 이번에는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7. **신앙실천** : 내복입고 따뜻한 겨울을 나십시오. 내복을 입는 사람이 문화인입니다. 내복福, 받으세요!

\*헌화 : 문금석 (시어머니 20주기, 김금용 권사 1주기)

\*점심 : 조윤숙/한인철 목사님 가정이 대접합니다. 한 목사님은 연구 학기를 맞아 반년 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돌아오셨습니다.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